초심자 모여 청년회 창립
"신행문화 내실 기할 터"

부산 수도사, 7월 9일
불교 청년회 창립법회 봉행

자발적 참여로 청년회 조직
회원 대부분 초심자 '눈길'
8월 중 임원회 소집 계획도



부산 수도사는 7월 9일 경내 법당에서 불교 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수도사에 청년 40여명이 찾아왔다. 처음 그들은 불교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지만, 그저 불교를 배우고 싶단 순수한 마음으로 수도사를 찾았다. 그렇게 몇몇이 모이다 보니 '청년회' 창립까지 이어졌다.

부산 수도사(주지 일철)는 7월 9일 경내 법당서 '수도사 불교 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청년회는 앞으로 '아름다운 배려, 참여하는 청년회'를 모토로 불심을 다져나갈 것을 밝혔다. 수월 스님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헌화 및 헌향, 격려사, 발원문 등 순으로 이어졌다. 발원문서 청년회는 "정진수행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익힐 것"을 다짐했다.

수진 스님(조계종 부산연합회장)은 "청년 불교가 한국 불교의 중심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청년 포교를 활성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며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은 그 일을 해내셨다. 수도사 청년회가 부산 청년 불교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한국불교 청년회의 비상을 꿈꾸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과 이헌승 국회의원, 김영춘 국회의원,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중앙회장, 이채원 대불청 대의원의장의 축사와 김태훈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의 치사가 이어졌다.

주지 일철 스님은 "지금 수도사에서 출발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동량"이라며 "현대 불교는 청년 불자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다 넓고 깊어질 수 있도록 수행정진하고 노력봉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회장에는 부산 대불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재원 씨가 임명됐다. 서재원 신임회장은 △가족법회 활성화 △전통문화 및 불교 수양 △수행 정진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서 회장은 "가정이 함께할 수 있는 법회를 만듦으로써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특히 수행은 청년 불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친교뿐만 아니라 불교적 소양도 갖춰 내실 있는 불교 청년회로 성장할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8월 중 임원회를 소집하고, 정기모임 일정 및 연간계획 등 확정하겠단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수진 스님, 일철 스님, 수월 스님을 비롯해 대불청 중앙회 및 대불청 부산지구 청년, 수도사 불교 청년회 회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차에 담긴 따뜻함으로 국민에 다가가길"

기장 차 문화대학 1기 수료식 개최

부산 '기장茶문화대학'(학장 정오)은 7월 12일 부산기장경찰서 대강당서 '기장 차 문화 대학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차 문화 대학 1기는 수료생 30명 중 대부분이 남성들이며, 경찰도 다수 포함돼 있단 것이 특징이다.

경찰들은 제복을 입고 독좌를 시연했다. 독좌는 '독좌대웅봉'의 줄임말로, 큰 산 봉우리에 앉은 기상을 담아 홀로 명상하는 공부인들의 자세란 뜻의 기본 다법이다. 이날 참석한 경찰들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무관이지만, 힘보다 먼저 차로 마음을 다스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며 "도움을 준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수료식은 △내빈소개 △헌향 · 헌다 · 헌화 △동영상 시청 △독좌 차 시연 △차문화대학 소개 △표창 · 감사장 수여 △수료증 수여 △격려말씀 및 인사말씀 △축사 △기념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학장 정오 스님(기장불교연합회 회장)은 "차는 전 세계인이 종교와 인종을 넘어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며 "민중을 위한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복이 되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부산 '기장 茶 문화대학'이 7월 12일 부산기장경찰서 대강당서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경찰들이 다법 독좌를 시연하는 모습.

정여 스님(前 범어사 주지)은 "삭막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팍팍해지는데, 여러분의 차 한 잔에서는 쉼과 고요함, 그리고 따뜻함을 발견했다"며 "차 속에 담긴 그 마음을 기장 주민들에게 잘 전해 참다운 안위를 책임지는 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학장 보혜 스님(부산차인연합회 회장)은 "수업을 하는 동안 경찰들의 딱딱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따뜻한 심성을 볼 수 있었다"며 "경찰들은 정말 차와 잘 어울리는 분들임을 알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기장 차문화 대학은 2015년 12월 29일 기장경찰서서 경찰관 29명 기장군민 12명을 시작으로 개강했다. 올해 3월 27일 국제 차문화 교류 대회 참석, 4월 16일 차문화 기행, 5월 1일 연등 축제 차회 주관, 5월 7일 부산차문화 축제 무대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부학장 보혜 스님은 "앞으로 경찰 뿐 아니라 차를 접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으로 회향될 것이며, 향후 차대학관도 불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학장 정오 스님, 부학장 보혜 스님, 정여 스님, 정남권 경찰서장, 김대철 한국 여천차문화원 원장, 박도희 숙우회 다향차행법회 원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생명나눔, 제4회 생명존중강좌 개최

7월 25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본부장 원범)는 7월 2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안국선원교육관 중강당서 제4회 생명존중강좌를 개최한다.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생명나눔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 기증 · 후원회원, 유관단체 등이다.

강의는 조원규 교수님(동아대학교평생교육원)의 '행복한 삶'에 대한 주제로 시작해 박동범 사무국장((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의 '생명존중사상' 강좌로 이어진다.

행복한 삶에 대한 강좌는 △행복의 정의 △행복을 위한 조건과 행복의 법칙 △면역과 암의 상관 관계, 효과적인 치료방법 △한국인의 특질 △행복과 건강 만들기로 진행된다.

생명존중사상은 △불교의 관점에서 보는 장기기증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신의학에서 주요 우울증 진단 기준 △우울의 원인과 치료방법 △자아 존중감, 자기 가치감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부산 생명나눔실천은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생명존중강좌를 마련했다"며 "이번 강좌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생명나눔 활동을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문화로 인성교육해요!"

마케팅고, 부산 동림사서 불교문화 체험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가 불교문화를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해 화제다.

동림사는 7월 14일 마케팅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체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명상 · 선화 · 단주 만들기 · 다도 · 천연염색 등 다양한 활동에 임했다.

김지은(3년) 학생은 "천연염색은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만들어져 기쁘다. 부모님께 선물할 것"이라며 웃어보였다.

또한 최민영(3년) 학생은 "기존에는 불교를 떠올리면 갈색 · 회색 등이 연상됐다"며 "단주를 만들다 보니 불교에 어울리는 색들이 너무 다양하단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은 "요즘 아이들이 학업은 물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다 보니 일상에 '쉼'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명상과 여러 불교 체험들이 아이들에게 쉼을 주고 차분함을 얻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 동림사는 7월 14일 학생 및 교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체험활동을 펼쳤다.

현재 동림사는 매년 학생 및 경찰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불교문화를 통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대선불교조계종 동산 대종사 입적 100일재

7월 9일 대구 금봉사서 봉행

(사)대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승)은 종정 범왕 동산 대종사 입적(4월 1일) 100일재를 7월 9일 대구 금봉사서 봉행했다. 현덕 스님 집전으로 진행된 100일재는 신중작법, 예불문, 천수경, 약찬게, 법성게, 축원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자리한 혜승 스님은 "종도들은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참회하고 범왕 동산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 정진에 매진할 것"이라며 "또한 종단의 전통성 회복을 위해 전 종도가 합심 단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법부장 도문 스님(성불사 주지)은 "유족 및 금봉사 신도회와 충분히 상의한 후 범왕 동산 대종사의 부도탑 제막과 유품전시관을 꼭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범왕 동산 대종사는 1930년 충남 공주서 출생, 27세 되던 해 대구 동화사 금당 김일웅화상을 은사로 불가에 귀의했다. 1969년 동산서도연구원 개설하고 1990년 경주 불국사 미술관장, 1998년 대한불교 대선조계종 초대(창종) 종정 등 역임한 바 있다. 1995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2007~8년 대한민국 서화예술비엔날레 창작미술대전 전시 수상 등 작품활동을 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1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86세, 법납 58세.


(사)대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승)은 종정 범왕 동산 대종사 입적(4월 1일) 100일재를 7월 9일 대구 금봉사서 봉행했다.

한편 대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덕 스님, 울산교구원장 공덕 스님 등 사부대중 50여명은 지난 5월 17일 범왕 대종사의 7재를 치른 바 있다. 손문철 지사장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2016
제 1 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접수 2016. 8.29 ~ 31
전시 2016.11.16 ~ 21

대한불교천태종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 마련하고자 2016년부터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미 2011년부터 천태불교사진공모전을, 2013년부터 원각서예대전을 시행해 온 천태종은 불교예술 전반의 신인작가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천태예술공모대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분야 및 분야별 공모 개요

분야	규격	출품료	출품제한
전통불화	200호 미만 (300cm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현대불화	200호 미만 (300cm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조 각	높이 250Cm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공 예	가로 세로 50Cm	1점당 50,000원	1인 3점
서예·문인화	전지 (가로70cm×세로130cm) 이하	1점당 30,000원	1인 3점
사 진	최소 3024×2016픽셀 JPG JPGE파일 (600만 화소 이상)	1점당 20,000원	1인 3점
민 화	100호 미만 (150cm 미만)	1점당 20,000원	1인 3점

시상내역

상 명	수상인원	시상내역
대 상	1명	1,000만원
최 우 수 상	2명	각 500만원
부문별우수상	7명 (부문별 1명)	각 100만원
가 작	7명 (부문별 1명)	각 50만원
장 려 상	14명 (부문별 2명)	각 30만원
특 선 입 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심사 발표 : 천태종 홈페이지 금강신문 앱 및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전시 : 11월 16일~21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출품자격 : 제한 없음

제출서류
출품 원서 (소정양식) 1부
출품자 경력서 (소정양식) 1부
작품 설명서 (소정양식) 2부

제출방법
원서배부 : 5월 1일부터 천태종 및 금강신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품 접수기간 : 8월 29일(월)~31일(수)
(우편발송의 경우 31일 도착분까지)
사진 E-mail접수 : ct-gongmo@daum.net
접수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접수장소 : 관문사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호)
문 의 : 천태종총무원 서울사무소 / 02-723-1559

유의사항
접수된 출품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출품 서류 미비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예 · 문인화는 배접 표구 액자 등으로 제작된 작품은 접수 불가.
낙선작은 본인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진의 경우 파일을 폐기함.
사진은 과도한 보정작업을 했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발표작 표절작 및 타인명의 출품 등은 추후 입상이 무효처리됨.
출품자와 출품료 입금자 명의가 같아야 함.
기타 공모전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상규에 따름.

| 주최 | 대한불교천태종 | 주관 | 제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 후원 | 금강신문사, 천태불교중앙박물관